

## 12/14(화) 욥기 묵상 29

욥기 19:13-29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의 변론에서 자신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잊혀져 버렸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21-22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 버림 받은 욥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지고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은 심지어 그의 집에서 일하던 종들과 아이들마저 그를 무시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15-16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또, 욥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언급합니다(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의 아내는 욥기 서두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면서 욥을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허리에서 난 자식’들은 누구를 뜻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버림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처와 자식’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조건적이고 연약한 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와 사귀고자 노력하고 가까이하고자 애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능력과 힘이 다 사라지면 마치 가을 나무의 떨어지는 낙엽처럼 모두 흩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그가 한 때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부와 명예, 그리고 수많은 아내들과 남녀 노비들도 그의 곁에 두었지만 그 모든 것이 유한하고 허무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전 2: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 모두는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그 사회적인 관계도 얼마나 조건적이고 유한한 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을 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던 욥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대속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신다’는 것을 가리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욥의 대속 주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둘째로 이는 우리의 대속 주이신 ‘메시야 신앙’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도 많지만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도 이러한

구속의 사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창 12:2-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욥은 죽음 이후의 영생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26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는 자신이 비록 살아계신 대속주로부터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최종적인 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러한 고백은 결국 욥이 자신의 현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그 고난의 현실과 (친구들이 볼 때) 부정적인 자신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고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고 무시하고 외면 당하는 것을 ‘자신의 가족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욥이 그 가운데 가진 것은 결국 고난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믿는 구속 주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 주이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 그리고 유혹까지도 다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히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로서 그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견고히 일어서서 참된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히 10: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토네이도를 위한 기도:** 지난 주말 미 중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수십 개의 토네이도로 인해 전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사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가족, 지역 사회의 복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 **교회 각 위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예배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혈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오만 김데이비드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